

선거와 다름의 미학

이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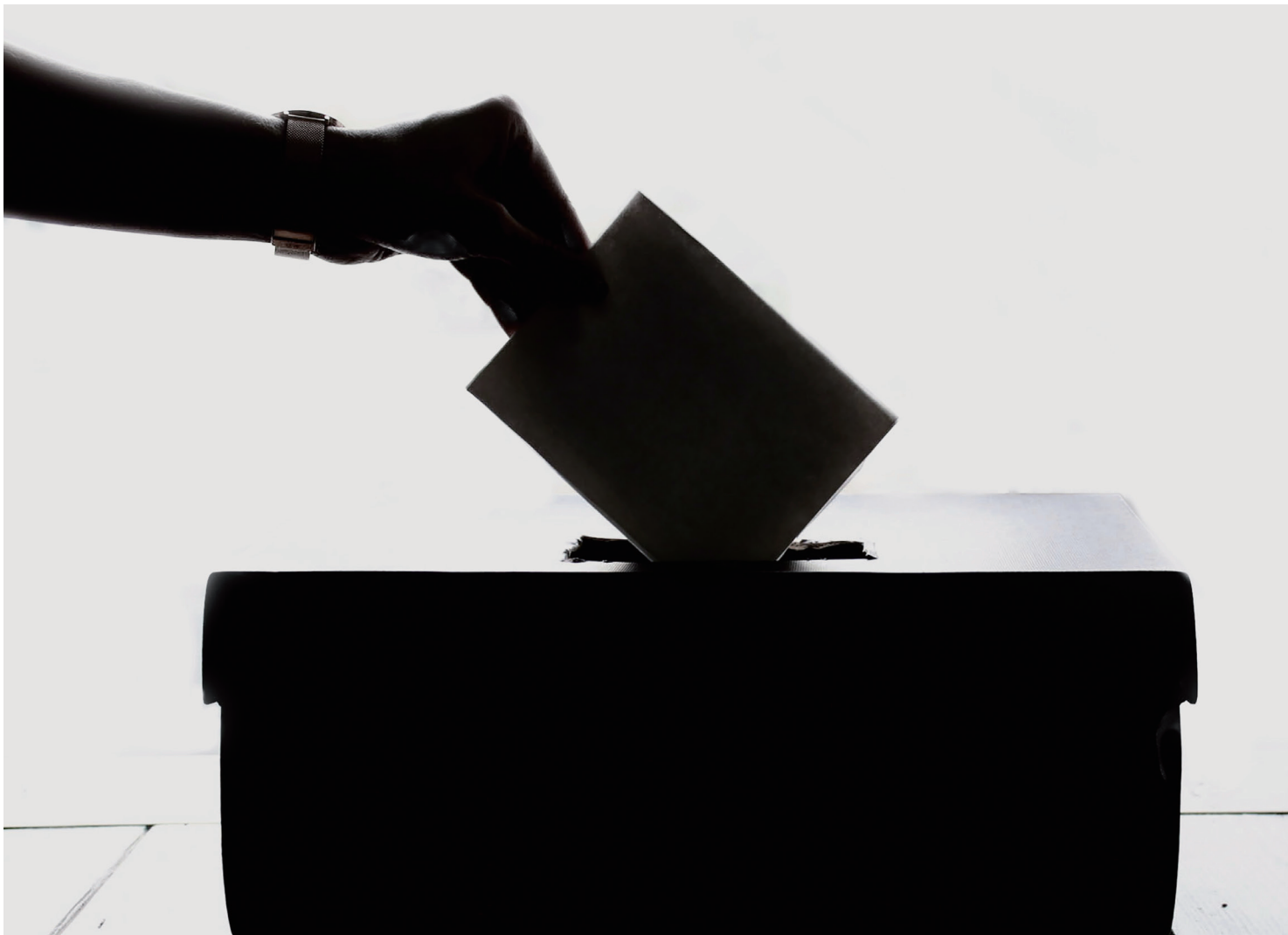
미디어학과 교수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다. 후보들 간의 진흙탕 싸움은 유권자들에게 낯설지 않다. 어쩌면 정치에 있어 갈등은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가 지적했듯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일 수 있다. 사회가 다원화하게 됨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와 기준 간의 마찰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정치적 대립의 요소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꼭 건강한 민주사회를 함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갈등 없이 일치된 목소리만이 존재하는 민주주의를 상상해 보라. 극단적으로 선택을 의미하는 선거가 그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당연한 과제는 갈등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슬러 나가느냐일 것이다.

그나마 정치권의 갈등은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소될 여지가 있다. 선거가 끝나면 후보자들 간의 다툼이 누그러지는 것도 결국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갈등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우려되는 것은 일반 시민들 간 다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번 보궐선거가 시민들에게 남긴 갈등의 골 또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유권자들 사이의 반목은 정치인들 유세 활동의 산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소위 정치적 비수기에도 시민들의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을 보며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필자의 시각에서 미디어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정파적 미디어가 이념적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오래된 주제이다. 우선 이념적 성향을 숨기지 않는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색채를 가진 미디어 콘텐츠는 수용자들 간의 심각한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관점의 충돌은 다름을 넘어 옹고그름의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미디어 수용자들 간의 갈등은 온라인 공간상에서 더욱 깊어진다. 물론 온라인 공간상에 존재하는 관점의 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관점의 다양성을 담담히 받아들이므로써 진정한 민주사회를 만들 수 있다.

(사진=언스플래쉬)

“

정치적 갈등을 다름의

미학으로 풀어내기

위해선 책임감 있는

미디어와 건강한 공론장이

필요하다.

”

원성은 건강한 민주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다양한 시각의 존재 자체가 결코 성숙한 공론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련의 연구들은 수용자들이 다양한 관점에 노출되었을 때 오히려 기존 태도가 강화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참신한 정보라 할지라도 본인의 구미에 맞게 해석하려는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관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현상은 포털사이트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얼마 전 한 언론사의 조사는 한국의 대표적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댓글의 이념적 성향이 상반됨을 발견하였다. 정치 콘텐츠가 범람하는 유튜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 플랫폼 안에 저마다의 입장에서 정치적 현안을 해석하는 채널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이것 또한 건전한 시민사회의 다원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자신들은 옳고 상대방은 그릇됐다는 가치 판단적 정보와 이념적 우월성을 부각하는 해악적 요소에 가까워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매체들이 난립하

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념적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필자는 정치적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를 민주사회의 한 단면으로 담담히 받아들이는 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서로 다른 가치와 경험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한 가지 질문에 동의(同意)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 수 있다. 이번 선거의 결과 또한 동의를 산물로 해석하기 어렵다. 어떠한 후보자가 선출되든 누군가는 그 결과와 뜻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그 결과에 동의할 수 없어도 적어도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해란 문자적으로도 상대방의 관점 아래(under)에서 보는 것(stand)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민들의 유연한 태도는 또한 제도적 뒷받침이 따를 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온라인 공간 안에 존재하는 관점의 다양성은 앞서 언급한 두 개의 포털사이트 공간과 같이 고립된 섬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를 연결해 주는 제도적 다리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정부 주도로 다양한 사안에 관해 공론화(deliberation)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것의 핵심은 다

양한 의견의 대표성과 이에 대한 전문성 있는 중재이다. 이러한 원리를 담은 건강한 공론장은 포털사이트나 유튜브와 같은 공간에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시민들의 열린 자세와 다양한 의견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준비된다면 갈등 속에 성숙해 나가는 민주사회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선거도 끝이 났다. 앞으로의 숙제는 선거가 남기고 간 정치적 갈등의 흔적들을 어떻게 다름의 미학(美學)으로 발전시켜 나가는가에 있다.

*해당 칼럼에서 참고한 문헌

- 1) Schattschneider, E. E. (1960).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2) Taber, C. S., & Lodge, M. (2006). Motivated skepticism in the evaluation of political belief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 755-769.
- 3) “네이버는 보수, 다음은 진보?... ‘첫 댓글’ 영향력?,” 《SBS 뉴스》, 2021년 2월 19일.